논어 8편 태백 17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學如不及，猶恐失之。」

독음 · 자왈 학여불급 유공실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배울 때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듯 애쓰고, 얻은 것도 잃을까 두려워하며 지킨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學 배울 학 / 如 같을 여 여

不 아닐 불 / 及 미칠 급 급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恐 두려울 공 공

失 잃을 실 실 / 之 갈 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